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연구 *

김 영 신 **

〈 목 차 〉

- | | |
|----------------------|------------------------|
| I. 서론 | Ⅲ. 조사결과와 분석 |
| Ⅱ.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 1. 박사학위논문의 정부간행물 인용도분석 |
| 1. 이용자 요구분석 | 2. 대학도서관 수서담당사서와의 면담 |
| 2.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 3.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
| 3. 정부간행물의 선정 | Ⅳ. 결론 및 제언 |
| 4. 정부간행물의 입수 | 부록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I. 서 론

정부간행물은 정부의 각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활동과 업적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간행함으로써 생산된다. 정부간행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기능의 문서적 표현이며 국가기관의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조직과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의 예산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민간기관에서 생산할 수

* 본 연구는 1996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없는 유일한 1차정보원이다. 특히 국민전체의 실제생활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인 경우에는 자료의 정보가치가 매우 높다. 셋째, 정부기능의 확대와 전문화 경향에 따라 경제관련 통계로부터 환경문제에까지 다양한 전문적인 자료가 생산된다. 넷째, 50%이상이 연속간행물이며 백서, 년감, 법령 등 다양하고 중요한 참고자료가 대부분이다. 지장본이 많으며 종이의 질이나 제본은 좋은 편이 아니다. 다섯째, 정부조직의 확대나 통폐합등 발간기관의 변경이 빈번하고 따라서 서지사항의 변경이 많다. 여섯째, 사료적 가치 이외에도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행물이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정보소통 도구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는데는 도서관과 같은 정보유통기관이 어떻게 그 통로역할을 효율적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관에 적합한 자료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유용한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부간행물서비스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정부간행물 발간의 목적과 그로 인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기능은 첫째, 정부 각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둘째, 정부계획의 문서화를 통한 공공성과 입법화를 보증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셋째,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넷째,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진행중인 공공계획의 효과적 집행을 꾀하며 다섯째, 주권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섯째, 여러분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곱째, 외국정부간행물 국제교환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여덟째, 사료를 남기기 위하여, 정부정보를 문서의 상태로 보존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개를 전제로 간행물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는 정부보유정보는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고 때로는 다른데서 구할 수 없는 유일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속해있는 기관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입수하는율이 매우 낮다. 김영신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2곳 이상 방문하는율이 80%이며 35.7%의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발간 정부기관을 방문하거나 3곳 이상의 서울 소재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정부간행물이 도서관 자료로서 독특한 가치와 유용성, 유일성을 지녔다는 것과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특성때문에 도리어 담당사서나 이용자가 정부간행물자료에 접근하는데 혼란을 주거나 심지어는 겁먹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전주제분야의 생생한 정보를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는 보물창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²⁾ 수서담당 사서들이 계획적인 정부간행물장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포제도의 무계획과 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을 못하고, 기관에서 배포해주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접수하는 정도의 정부간행물 수집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장서개발의 이론이 먼저 정립되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므로 현장을 이끌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수서업무가 진행되었기 보다는 이론이 현장을 뒤쫓아 다니며 정립되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무계획속에서 수동적으로 모아져서 구축된 장서가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한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명확한 계획에 의한 장서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2. 연구목표

본 연구는 주어진 현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정부간행물을 보다 계획적으로

1) 김영신, 비통보식 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p.47.

2) E.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3rd ed. 1995. pp.210-211.

4 圖書館學論集(第 29輯)

수집하여 효율적인 정부간행물장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을 위해서 다음 사실들을 밝혀 보려고 한다.

첫째, 사회과학연구자들이 연구논문에서 빈번히 인용하는 자료의 유형, 발간기관, 타이틀을 밝히고 둘째, 대학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이 이용자의 필요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는지 조사하여 보다 조직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제한점

첫째, 정부간행물의 유통과 무료배포관행을 정부간행물 배포에 관한 연구문헌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료배포에 관하여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두 곳에서 판매와 관련되는 제문제와 연구자들이 구입하는 정부간행물자료의 유형, 발간기관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필요와 연구문헌 속에서 정부간행물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의 최근 3년간 박사학위논문의 인용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학위논문에서 정부간행물의 이용정도와 경향은 연구자에 대한 정부간행물의 중요도와 필요의 정도를 역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도서관 수서담당사서 관점의 정부간행물자료 입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 여섯곳의 수서사서와 면담을 통해 장서개발 측면에서 정부간행물 입수와 관련된 도서관의 고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언등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전주체에 관한 조사 연구가 아니라 정부간행물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주제분야인 정치,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간행물의 정의나, 범위, 유형구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나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정부간행물은 취급하는 정보내용 뿐만 아니라 발간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반 출판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정부간행물이 여러면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은 도서관 장서개발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정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그 도서관 정부간행물장서의 수준과 범위, 보유에 관한 모든 기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도서관의 예산, 직원, 공간의 제약과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의 영향을 받는다. 장서개발의 운영요소에는 먼저 이용대상에 대한 분석이 있을 후 이에 기초한 개발정책수립과 정책에 준거한 자료선택과 수집, 그리고 적절한 폐기가 포함된다.

정부간행물의 장서개발 수집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의 다른 장서의 개발과 다를바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유의해야 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간행물정보의 전반적인 노후속도는 일반자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과 정보가치가 높은 보도자료와 같은 요구가 많은 자료들이 단명자료 인접에서 선택적 수서와 적절한 폐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부간행물자료가 무상으로 배포된다고 해서 그것이 도서관 입장에서 전적으로 비용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자료정리, 소장,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무료이건 유료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장서가 구축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뚜렷한 장서개발 목적과 목표수립,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한 선택적 정부간행물 수집은 필수적인 것이다.

1. 이용자 요구 분석

서비스란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여 요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라 한다면 도서관 서비스의 시작인 장서구축에 있어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며 보다 더 이용되는 가치있는 장서 개발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이 첫 번째 요건이 될 것이다. 문승주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85.4%가 유가간행물을 선정할 때 대학구성원의 연구지원을 첫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답하고 있다.³⁾ 어떤 유형의 자료가 자관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가? 빈번히 요구되는 자료군을 식별할 수 있을까? 할수있다면 자료의 특성은 무엇일까? 관중에 따른 정부간행물 이용 패턴에 차이는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질문지조사 또는 이용통계로부터 유형별 통계를 분석하여서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발행시기별 이용통계를 분석하면 자료의 보유년한 또는 폐기시기를 추정해 낼 수도 있다. 조영주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연구자들의 이용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26.6%) 다음은 인구통계(14.6%), 경영/사업정보(13.1%)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⁴⁾ 이 결과는 Hemon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⁵⁾ 그리고 발행시기별 이용은 이용자의 50%가 1년 이내에 발간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들이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컸다.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인쇄자료의 경우, 정기간행물, 신문,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회의자료, 특허자료, 규격자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허자료와 규격자료도 정부간행물이므로 이들을 합치면 정기간행물보다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가 정부

3) 문승주.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p.68.

4) 조영주. 정부간행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pp.46-49.

5) Peter Hemon & Gary Purcell. *Developing Collection of U.S. Government Publications*. JAI Press. Greenwich. 1982. pp.106-108.

간행물로 밝혀졌다.⁶⁾ 74%의 이용자가 3년 이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반면에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는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

Hernon의 연구결과에서 정부간행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자 집단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이며 그중에서 특히 경제, 경영, 정치 분야의 연구자들의 정부간행물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⁷⁾

이용자의 필요를 조사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인용분석을 통해 학술적 연구자의 정부간행물 이용패턴과 연구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자료군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용도나 경향에서 필요의 정도와 선호하는 유형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정부간행물의 인용정도는 이용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⁸⁾

그밖에 참고실에서 이용자들이 질문하는 정부간행물 관련 질문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정부간행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을 분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센터에서 개인들이 구입하는 자료의 기록을 추적하여 판매패턴을 분석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부간행물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간행물 장서구축을 위해서는 방향이 명확한 장서개발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이 장서개발 계획속에는 자관의 계획과 타관과의 협력계획이 동시에 고려되며, 선택정책과 제외정책이 조정되어 포함된다. 전체장서의 장서개발 방향, 범위, 수준, 주제, 주력주제, 우선순위, 단명자료의 취급, 보유기간 등에 대한 방침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수집범위, 폐기문제, 특정자료 수집에 따르는 문제, 직원문제, 관리문제, 공간문제등에 대한 방침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정책은 자관의 전

6) 최은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1996. pp.20-21.

7) Hernon & Purcell. 전제서. p.30.

8) B. E. Harner, "Government Information as Recorded in Core Serials of the Geological Sciences." *Government Publishing Review*. vol.17. 1990. p.346.

반적인 장서개발정책, 예산, 직원,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발간기관의 배포정책으로부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관이 선호하는 특정유형의 간행물이 유가/무가인지, 만일 한정량만 발간되는 경우 자관이 배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발간기관마다 다른 배포선에 대한 도서관의 대책은 어떠한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특히 정부간행물의 노후속도는 일반자료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발간된 지 3년이 지난 정부간행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5년 이상된 자료는 폐기고려대상이 된다.⁹⁾ 예를들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도 자료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자료이지만 자료의 수명이 매우 짧은 일시적 자료이다. 도서관 업무의 전반적인 정체를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단명자료의 입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경제, 정치분야에서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류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그때그때 무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확실한 정책이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을 것이다.

각 기관의 자료출판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출간하자마자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자료의 가치가 떨어지자마자 폐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정부간행물 장서를 개발하는 첫 단계이다.

3. 정부간행물의 선정

정부간행물은 정부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식과정에서 또는 활동후의 결과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생산되는 주제는 기관 조직의 기능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자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간행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요구빈도가 높은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을 찾아내고,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

9) Herson & Purcell. 전제서. p.34.

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문헌의 구조개념과 주제범위 내에서 기관의 조직과 짝맞추어서 수집대상자료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간행물 이용자료통계를 분석하거나 이용자조사를 통해 많이 이용되는 자료의 유형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유형을 파악하고 발행시기별 이용통계를 분석하여 폐기년한을 추정하여야 한다.

현재 일선사서들이 정부간행물 자료를 선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서지도구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여 서지도구나 판매목록 등에 대한 사서들의 불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편에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동원하여 각 기관의 발행자료를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출간되는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 정부간행물 목록
- 발간기관의 배포목록 - 예) 경제자료안내실 월간자료 목록
- 정부간행물 뉴스
- 관보의 정부간행물 소개란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의 판매목록.
- 같은 관공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목록 - 예) 서울대의 장서목록
- 발간기관에 직접문의
- 신문의 책소개란
- 지방뉴스미디어
- 그밖에 이용자가 특정자료를 요구할 때 얻는 정보나 동료사서로부터도 새로운 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상 수서담당 사서들이 정부간행물 출판, 유통, 수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몇종 안되는 기존의 서지자료 마저도 어떤 서지도구나 선택도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10) 정부간행물제작소.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의 부록1, 국내정부간행물 관련서지리스트 참조.

4. 정부간행물자료의 입수

1) 무상배포자료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 자료의 첫 번째 입수통로는 발간기관으로부터 무상배포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주도권이 도서관쪽에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간행물 사서는 수서에 수동적이 되기 쉽다. 한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무가간행물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이 64%, 반면 주는대로 그저 받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41%로 나타났다.¹¹⁾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의 90% 정도가 무상인 것은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수서업무를 수동적으로 만들며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이다. 90%가 구입자료가 아닌 기증자료 이기 때문에 사서가 상대적으로 정부간행물 관리를 소홀하게 되는 점도 있다.¹²⁾

정부간행물관련 한 기관의 자체연구에서 정부간행물의 무상배포에 따르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배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업무책임자가 없는 정부기관이 많다. 둘째, 있는 경우도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셋째, 발간기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무상배포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제한된 부수만을 간행하기 때문에 일단 배포가 끝난 후 도서관에서 자료를 입수하려고 할 때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정부간행물 배포처에서 도서관에게 자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 사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불필요한 정부간행물을 배포받는 경우 처리기준이 없다.

실제로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 마저도 간행된 정부간행물 발행종수 60% 정도만 무상배포받고 있는 실정이다.¹³⁾

무상으로 배포되는 정부간행물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배포대상 명단에 오르는 길이다. 몇가지 제안을 한다면 특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특정자료 입수를 원할때마다 계속 보낸다.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11) 문승주. 전계서. p.73.

12) 조영주. 전계서. p.34.

13) 정부간행물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 자료실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1994. p.37.

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요구한다. 담당부서와 업무담당자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2) 유상배포자료

두번째 정부간행물 입수통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나 서점에서 위탁판매되는 유가자료를 구입하는 것이다. 사서들은 판매센터 비치자료의 다양성과 최신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체발간 통계자체가 부정확하므로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유가간행물은 전체 간행종수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판매센터에 전시된 간행물이 전체 유가 간행물의 3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이 역시 발간목록이나 발간예정목록의 불완전성 때문에 수서사서들이 적시에 판매되는 간행물을 파악하여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판매센터를 통해 유가간행물을 구입하고 있다. 개인이 유가 정부간행물을 입수할때도 대부분이 판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센터의 위치, 취급간행물 종수, 서비스 종류와 소요시간 등은 정부간행물 입수에서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렇게 유가정부간행물의 구입통로로 가장 중요한 정부간행물센터가 전국에 공식적으로는 60곳이¹⁵⁾ 존재하나 실제로 원하는 정부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센터는 이보다 적다. 예를 들어 D시에 4개의 판매센터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나 원하는 정부간행물 구입이 가능한 곳은 D서점 한곳 뿐이다. 뿐만아니라 정부간행물 판매 종수도 서울소재의 판매센터들에 훨씬 못미친다. 따라서 지방도서관은 정부간행물의 현물을 보고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유가정부간행물을 입수할 수 있는 다른 통로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외에 간행기관이 직접 판매하는것이 있다. 정부관리 기업체나 단체의 간행물로서 발

14) 강미혜, "정부간행물의 출판현황과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운영실태분석". 도서관학논집. 제 23집. 1995. pp.79-107.

15) 정부간행물 제작소. 정부간행물 목록. 1997. pp. 1026-1027.

간기관이 직접 판매여부를 결정하여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⁶⁾ 이렇게 유가간행물의 구입통로도 다원화되어 있어 간행물에 따라 구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수서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중개인을 이용하려고해도 정부간행물이 가격이 싸고 판매에 따른 이윤마진이 너무 적어서 다른 일반자료처럼 도서 중개인을 쉽게 사용하기도 어렵다.

세번째 정부간행물 입수방법은 도서관끼리 불필요하거나 복본인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다. 미국 경우에는 기탁도서관에, 그밖의 도서관간에 정부간행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¹⁷⁾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간행물의 교환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3) 입수의 애로점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입수와 관련된 어려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지도구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발행자료 파악이 어렵다.
- 현물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다.
- 소급자료나 대체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 유가간행물인 경우 유통경로가 분산되어 있으며 유통채널의 체계적 구축이 안되었다.
- 무가간행물인 경우 합리적인 배포기준이 없다.
-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의 절대적 부족으로 수요창출에 소극적이다.
- 사무상 번잡한 판매자료 구입과정 때문에 유가자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판매자료의 최신성, 타이틀, 양이 부족하다.
- 무상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관의 도서관이 배포리스트에 오르기 어렵다.

배포와 관련된 입수과정상의 어려움 이외에 정부간행물 수서와 관련된 애로점은

- 정부간행물의 포맷이 일반적이 아닌 것이 많다.
- 역사적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대부분이 인쇄자료이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공간의 부족이 쉽게 야기된다.
- 수집한 자료의 분류, Class 정정, 목록관련업무 등 정리문제가 복잡하다.
- 노화가 빠르다.

16) 정부간행물 판매보급규정. 총리령 제151호. 1975년 6월 21일 개정.

17) Depository Library Council. *Guideline for the Depository Library System*. p.117, p.121.

- 많은량이 단명자료이다.
- 불필요한 정부간행물이 입수되었을 때 합리적 처리 방법의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
- 자료 교환이나 자료공유 지침이 없다.
- Superseded 자료의 처리문제를 포함한 폐기기준이 없다.
- 정부간행물관련 전국규모의 학회나 워크샵의 부재, 그리고 정부간행물관련 지침이나 지도의 부족, 이론의 선도 부족으로 일선의 사서들은 정부간행물 업무를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간행물 서비스와 관리가 가장 잘되어 있는 미국경우 GPO가 출간, 서지제공, 배포를 통괄하며 전국적으로 1,400여개의 기탁도서관에 무상자료를 배포하여 기탁도서관의 지침 및 지도자료를 제공할뿐 아니라 2년에 한번씩 기탁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기탁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지도를 한다.¹⁸⁾

Ⅲ. 조사결과의 분석

1. 박사학위논문의 정부간행물 인용도 분석

한 주제분야 연구논문의 인용도를 분석해 보면 그 주제분야 연구자들의 실제 문헌이용 패턴을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이용정도와 이용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간행물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의 최근 3년간의 국내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18) 상게서. pp.115-122.

1) 경제학 분야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1995-1997년)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총 257편 중에서 C대와 H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92편 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경제학 학위논문의 77%(71편)에서 정부간행물이 인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Hernon과 Purcell의 연구에서 미국의 1년간 발표된 경제학분야 논문의 58.7%가 정부간행물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¹⁹⁾

다음은 정부간행물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에서 그 사용정도를 밝히기 위하여 각 논문의 총 인용횟수 대비 정부간행물 인용횟수를 조사하였다. 정부간행물을 인용한 71편 논문에서의 인용횟수는 총 4,945회이며, 그중에 정부간행물의 인용은 1,111회(23%)로 나타났다. 즉 경제학 학위논문의 77%에서 정부간행물이 참고문헌으로 사용되었고, 이용정도는 총 인용의 23%를 차지할 만큼 정부간행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분야의 연구논문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정부간행물을 생산하는 정부기관을 식별해 낼 수 있다면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속의 인용된 문헌의 발간기관별 인용정도를 분석하였다. 그결과 총66개의 정부간행물 발간기관명이 식별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 인용된 자료를 가장 많이 발간한 기관은 한국은행(73회)이며, 다음은 통계청(32회), 경제기획원(22회), 한국산업은행(22회), 한국개발연구원(18회) 순이었다. 이들 5개기관에서 발간된 자료가 경제학 학위논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총 312종의 정부간행물의 46%인 145종을 발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핵심기관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역으로 논문 1편당 몇 개 기관의 정부간행물이 인용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27편의 논문에서 1-3개관, 19편에서 4-6개관, 6편에서 7-9개관, 6편에서 10-12개관, 1편에서 13개 기관의 간행물이 인용되고 있었다.

19) Hernon & Purcell. 전제서. p.108.

한편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간행물 유형이 존재하여 보다 빈번히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논문에서 인용된 정부간행물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학박사학위논문 77편에서 인용된 총 312종의 정부간행물중 통계류가 39종, 연감류가 9종이었고, 나머지 264종은 단행본이나 부정기간행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설문조사를 사용한 여러건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통계, 센서스 자료 순의 연구결과와는 아주 다른 예상 밖의 결과였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에서 도출되는 간행물의 선호도와 실제 연구논문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간행물이 일치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제시하고 원인분석과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은 다음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2) 정치학 분야

정치학은 정부간행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주제분야이다. 국내에서 최근 3년간 발표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은 총 125편이며, 그중에서 C대와 H대 소장분 46편(36%)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의 72%(33편)에서 정부간행물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정치학 분야의 가정 권위있는 학술잡지인 *Journal of Politics an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지의 인용분석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출판사는 GPO로 나타났다.²⁰⁾

조사한 33편의 논문에서 총 153종의 정부간행물이 참고문헌으로 사용되었는데 인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총 5,867회의 인용중에 정부간행물을 568(9.68%)회 인용되고 있었다.

빈번히 인용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정부기관을 식별하기 위하여 발간기관별로 인용횟수를 조사한 결과 정치학논문에서는 세부주제에 따라 이용되는 간행물의

20) Stephen McGinty. "Political Science Publishers : What Do the Citation Reveal?" *Collection Management*, vol.11. 1989. p.96.

발간기관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총 42개 정부기관명이 식별되었다. 정치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부간행물을 생산한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3회)로 밝혀졌고, 다음은 경제기획원(15회), 국토통일원(12회), 한국여성개발원(10회), 통일원(9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이 총 인용종수 153종의 45%(69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특정주체의 연구자에게 중요한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논문1편당 몇 개 기관의 간행물이 인용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총 42개 기관중 1회만 인용된 자료를 생산한 기관이 16개 기관, 2-5회 인용된 자료발간기관이 16개 기관, 11-20회 인용된 기관이 2개 기관이었다. 단일논문에서 인용된 자료의 발간기관수는 경제학보다 적고 구분이 뚜렷하여서, 단일논문에서 9개 기관 자료를 사용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세부주체에 따라 인용하는 간행물 종류와 발간기관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료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총 153종의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정부간행물중 연감류 5종, 통계류가 13종이었으며 나머지는 단행본과 부정기간행물, 보도자료류였다. 이 결과는 경제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상밖의 결과였으며 원인분석은 다음연구로 미루려고 한다.

2. 대학도서관 수서담당사서와의 면담

대학의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장서를 구축하는 현장 사서들이 정부간행물 수집과 관련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서지도구에 대한 지식, 적극성의 정도, 수서관행과 행태, 수집통로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 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6개 대학의 수서담당 사서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에 대한 인지도는 반 이상의 사서가 참고도서나 연속간행물

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간형태가 독특하지만 기증으로 대부분 입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다. 정부간행물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억나는 간행물의 서명을 요구하였다. 정확한 서명을 말할 수 있는 사서는 K대 한곳이었고 다른 사서들은 통계, 연감, 인구 ... 등 유형을 제시해 주었다. 수서사서들이 정부간행물 수집에 관하여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둘째, 정부간행물 서지도구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알고 있는 정부간행물목록이나 자료의 출간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소스를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여섯명의 사서가 모두 「정부간행물 목록」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간행물 뉴스」와 같은 최신자료를 소개하는 소스를 모르고 있었다. 정부간행물 대부분이 기증자료이고 수서부에서는 구입 자료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간행되는 정부간행물의 약10%에 해당하는 유가자료는 연구자 개인이 구입할만큼 요구가 큰 자료임을 수서사서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편 기증에 관하여 90%의 정부간행물을 발간기관에서 무가로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는 현재제에서 도서관이 자관에 기증되는 정부간행물 입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알아보았다. 수서부는 구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증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정부간행물 자료가 기증되어 오는지 대부분의 수서부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참고열람실이나 연속간행물실과 같은 열람부서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증이 중단될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기증받고 있는 정부간행물을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하며 매우 강하게 반응을 하였다. 필요한 자료를 「정부간행물목록」이나 「정부간행물뉴스」에서 확인하여 발간부서에 직접 기증을 요청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K대, C대, B대가 전화로 먼저 요청하고, 발간처에서 요구할 경우 공문을 다시 보낸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기증을 요청하는 대학의 지명도와 국공립/사립에 따라서 발간기관의 반응이 매우 달랐음을 발견하였다. C대나 K대 경우에는 전화요청으로 대부분의 기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답한 반면에 작은 사립대 도서관은 항상 공문발송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기증받는 자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은 K대와 C대, B대 등 50%의 도서관이었다.

즉 6개 대학도서관의 수서담당 사서들은 정부간행물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적극적인 수서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간행물 자료에 대한 지식에서는 연감, 통계 등 유형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서명이나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에 빈번히 인용하는 자료들은 잘알지 못하였으며 이용자 요구와 수서를 연결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 도리어 이용자들이 발간기관이나 판매센터를 통해 직접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원인을 분석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유가 정부간행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판매목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간목록과 판매목록간의 수록종수의 차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발간목록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입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넷째, 정부간행물 수서정책을 세운후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기증업무와 구입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정부간행물이 기증으로 입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서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의 이용행태나 빈번히 사용되는 자료의 유형, 또는 무상배포 관행에 관한 지식이 수서사서 보다 열람사서가 더 많다는 것은 정부간행물을 위한 구체적인 수서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용자의 필요확인, 수서사서의 선택, 열람사서가 가지고 있는 기증자료 관련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현장사서들은 특정간행물이 필요한 경우 발간기관에 요청하면 배포리스트에 없다고 거절당하거나, 몇번 전화하면 공문을 다시 요구하는 등 업무의 번거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상자료의 경우도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포해 주는 자료나 받는 수동적 사세가 되기 쉬웠다. 그러나 무정책으로 대처하는 현장사서들 중에도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부록1. C도서관의 수서사서와 면담 참조)

3.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수서담당 사서들과의 면담에서 유가간행물 입수는 간행기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판매센터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율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판매센터를 두곳 방문하여 정부간행물의 판매자 입장에서 수요자인 개인연구자나 도서관이 선호하는 자료군, 중요자료의 발간기관, 주요타이틀에 관해 알아보았다. 방문한 곳은 교보문고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프레스센터의 판매센터 그리고 과천정부청사 경제자료실이었으며, 판매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외부용 「판매목록」, 내부용 「간행물발간예정시기목록」과 「주요이용사례통계」 등을 입수하였다.

위의 자료들과 경제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조사된 인용도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경제학 논문 인용건수 상위 정부기관/ 간행물 판매량 상위 정부기관

경제학논문 인용건수 상위 발간기관	간행물 판매량 상위 발간기관(A급)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내무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환경부, 재경원, 과기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무역협회

* 판매센터의 담당자가 판매목록에 A++, A, B, C로 표시하였음. 밑줄친 기관은 A++기관임.

위의 비교를 통해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입수하는 자료에 대해 판매센터에서는 도서관의 수서담당 사서는 인지 못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인용건수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관이 판매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판매

센터를 통해 정부간행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할 정도로 요구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 필요나 이용행태에 대한 피드백이 없이, 적극적인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학도서관이 연구와 교육 활동지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현행제도에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와 구입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한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의 담당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²¹⁾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의 입장
 - 대형서점에 집중적으로 정부간행물 공급을 하고 있어서 모든 판매센터가 기대되는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수요가 많은 정부간행물은 인쇄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 재경원, 「외국환관리법령집」은 법신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다.
 - 판매가 부진한 자료의 경우 도리어 발행기관이 많은 부수(200-500부)의 인수를 요구한다. (판매되지 않는 자료를 반팔할때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 정부간행물 구매자의 입장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로 지정된 곳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다. 원하는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정부간행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은 규모가 작거나 판매종수가 적으며, 대도시의 대형서점의 한코너에 형성된 경우에 규모가 더 크다.
 - 필요하여 구입을 원하는 자료가 무상배포(비매품) 간행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수하기가 어렵다.
 - 「정부간행물목록」은 비매품이므로 원하는 지방의 단체나 개인에게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브라우저할 도구가 없어 우편으로 지방에서 정부간행물을 주문하기는 어렵다.
 - 소량의 간행물 구입을 시도하는 경우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중 하나는 발행기관의 정부유통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간행물을 발간은 하지만 이용시키는데는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유가간행물에 대해서 조차도 홍보노력이 부족하여 뒤늦게 발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발간시 수요에 따른

21) 서울소재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책임자 J씨와의 면담내용

판매부수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구입을 원하는 자료를 추가로 주문하는 경우 재고가 없을때가 많다. 반대로 판매종결이 필요한 경우에 간행물의 반품절차가 복잡하여 위탁판매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며, 업무담당자의 수시변동으로 정부간행물의 입수를 원하는 개인이나 도서관 그리고 위탁판매자가 담당자와 연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연구자들의 정부간행물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대응하여 정부기관은 정부간행물의 발간에만 관심을 갖지말고 간행물의 유통과 공급에도 관심을 가지고 판매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발견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용문헌 분석결과 경제학 주제 박사학위청구논문의 77%, 정치학 주제 박사학위논문의 72%가 정부간행물을 인용하고 있었다. 경제학주제에서 인용된 자료를 가장 많이 출간한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은 한국은행, 통계청, 재정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순으로 이 다섯기관이 전 인용 종수의 46%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치학 주제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원, 국토통일원, 한국여성개발원 순이었는데 상위 5개 기관이 총 인용자료의 종수의 45%를 발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시 각 주제에 따라 관심있게 추적해야할 대상 기관이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6개 대학의 수서담당 사서와의 면담결과 정부간행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수서를 위한 서지도구나 이용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자료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부간행물 구입시에도 이용자의 필요를 분석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중요 정부 기관의 발간목록을 점검하여 유가정부간행물을 선택하기 보다는 기존에 입수되었던 자료의 유형이나 보내오는 판매 목록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즉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에 연구자들의 정보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무상기증으로 받은 정부간행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용패턴이나 기증자료에 관한 정보도 수서부서보다는 열람부서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두 부서의 사이에 이에 대한 의사소통이 많지 않았다. 매우 가치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기증으로 얻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리어 소홀하게 취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며 구입과 기증이라는 입수체제의 이중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자료수집 비용면에서 신청 주문 입수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경제적 정보원인²²⁾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첫번째 단계는 이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이용자 필요에 근거한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정부간행물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수립이 어려운 면 수서지침이라도 마련하도록 한다. 여기에 정부간행물 제작소의 수서방침을 참고하여 지침의 몇항목을 소개한다.

- 수서대상기관의 기관별 리스트와 관리자별, 시기별 기본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하도록 한다.(세부업무 담당자, 업무처리방법, 업무처리기록 등)
- 매년말에 수집대상 기관에 발간예정목록을 요청하고, 정부간행물목록, 행정자료목록, 기관별 자료목록과 함께 발간예정목록을 참고하여 발간사항을 정기적으로 문의하고 파악하도록 한다.
- 꼭 필요한 유가자료는 '계속주문'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수치화된 자료는 결호없이 수집하고 소급소장한다.

22) Margaret Lane. *Selecting and Organizing Government Publishing*. ALA. 1987. p.99.

- 시사성 있는 자료는 최신화를 피하며 일정기간 후에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 연2회 기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로 요청한다.
- 타도서관과 적극적으로 자료교환을 하도록 한다.
- 회원제로 자료를 배포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
- 직접 배포하는 자료 입수를 위해 직접수령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둘째, 발간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간행물제작소나 각 발간기관이 「발간예정목록」을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발간예정 정보가 수서업무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정부수 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지정보나 그밖의 경로를 통해 발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자료를 구하기에 늦는 경우가 많다.
- 정부간행물에 담긴 정보는 바로 그 시점의 현황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입수로 정보의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 현재의 쟁점사안인 경우는 간행물을 접한 후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입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보건정책’이나 ‘건축법’ 등 국민복지와 관련이 깊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²³⁾

그밖에 주제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제접근도구를 발간해 주고 정부간행물의 포맷과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발간전에 간행물의 목적을 명확히 정하여(기존정보의 갱신, 행정용, 홍보용 등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중복이나 겹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한 후에 간행해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기탁도서관제도의 시범운영을 제안한다.

모든 정부기관을 통합한 기탁도서관제도는 현 발간체제에서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간행활동이 활발하고 이용자의 요구가 큰 통계청이나, 간행물의 가격이 매우 비싼 특허청과 같은 대표적 간행기관이 전국에 몇 개의 기탁도서관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국가정보 제공을 위한 한걸음 진전이 될 수 있겠다.²⁴⁾

23) 상계서. p.100.

24) K.Harwell. "Promoting Patents and Trademarks : A Study of Outreach activities in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i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13. no.4. 1996.

넷째, 수서담당사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조직편람을 참조하여 새로 생기거나 통폐합되는 기관에 즉시 접촉하여 배포 리스트에 오르도록 노력한다.
- 연속간행물(정부간행물의 50% 차지)의 체크인 파일에 간행물 도착예정 날짜 카렌다를 설치하고 예정날짜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연락이 즉시 취해지도록 조치해 놓는다.
- 각 발간기관의 배포담당직원의 파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나 확인하며 접촉한다.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나 소급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중개상이나 브로커를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활용해 본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2차자료를 눈여겨 보고 배우도록 한다.
- 무엇보다도 정부간행물 전반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간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한 정부간행물 장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서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나이지리아의 예를 들어본다.

나이지리아처럼 작고 단순한 국가일수록 통치기구의 통제범위가 크며 국민과의 소통도구인 정부간행물의 중요성도 크다. 그러나 정부간행물 간행과 배포의 비체계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나이지리아의 한 사서는 절판되기 전에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정부간행물 발간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수서방문(acquisition tour)을 제안하였다. 먼저 원하는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방문예정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낸 후 약속 날짜에 방문하여 직접 정부간행물을 수령한다. 처음에는 시행하기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지만 효과는 100%에 가깝다고 하며, 많은 정부기관들이 배포리스트에 확실하게 올려 주었다고 한다.²⁵⁾ 우리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서의 태도와 열의와 꾸준한 노력은 분만을 만 하다.

pp.393-401.

25) A. Ogunbamers, "Acquisi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Nigerian Experience." *Government Publication Review*. vol.20. 1993. pp.515-521.

〈부록1. 수서사서와의 면담의 예〉

정부간행물 관련 수서사서와의 면담내용

1. 정부간행물을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2. 구입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1) 행사를 통해서 2) 직구입 3) 회원가입

※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고 있고, 회원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회원가입 한다.
기증기간이 끝나서 입수되지 않은 것은 판매센터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어떤 것은 처음에만 정부에서 찍고 인정기간이 지나면 판권을 파는지 발간기관에서
구할 수 없고 업자를 통해서 사야한다고 얘기함. 비매품이 돈 주고 사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른 판매센터 목록인데도 가격은 동일하다고 함. 그것이 이상하다고
함. 발간체계나 유통체계, 구입경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회원가입까지 해서 정부
간행물을 갖추어 놓으려는 이유는 아라도 찾는 이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했음.

3. 정부간행물 수서를 위한 선정도구는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정부간행물 목록, 판매센터 목록, 출판물목록 등 현재 나와 있는 것 모두, 그리고 발행기
관에서 보내주는 팸플렛 등

4. 이용자가 정부간행물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주로 어떤 자료를 신청하였습니까? 통계, 단행본 성격의 정부간행물. 구입할 수 없
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연감이나 통계자료는 옛날 자료라도 산다.

-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구입을 해 주십니까? 할수 있는 한 전부, CD-ROM으로 구
입해야 할 경우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해야 한다. (가격이 고가)

- 만약 기증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구입하는 것만 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연속간행물실로 물어 봐라.

- 주로 이용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열람실로 물어 보아야 할 것
같다.

- 주로 신청하는 학과는 어떤 학과입니까?

각 실별로 신청을 받아 모아서 내게 주기 때문에 학과는 잘 모르겠다.

5. 정부간행물은 주로 기증이 많은데 기증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정기간행물실 선생님께서 정부간행물 기증처를 체크해서 정부간행물 목록과 대조해서 빠진 것은 전화해서 기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정부간행물 수서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신경쓰이는 부분은?

자주 변한다. 정부간행물은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IMF 이후 회원가입의 요구가 늘고 있고 통계청의 경우는 기증받겠느냐는 문의를 한 다음 기증해 주고 있다.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다.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어 있고 이용자의 연구시에 이용자를 직접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느낌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이 정부간행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기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 확인해서 구입할 것은 한다고 했다. 정부간행물은 최신성도 중요하지만 구비도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함. 수서, 열람사서 모든 제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음.

※C대 수서사서와 면담내용

참 고 문 헌

- 강미혜, "정부간행물의 출판현황과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운영실태분석." 도서관
학논집 23집(1995). pp.79-108.
김영신, "비통보식 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평가." 이화여자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1995.

-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자료실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1994.
- 문승주.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정태준. 정부간행물 판매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장·단점 및 의견. 정부간행물판매센타 프레스센터.
- 조영주. "정부간행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최은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제 30권 제4호 (1996.12). pp.13-38.
- 홍정화. "정부간행물 배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3.
- Evans, G. Edward.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2rd ed. Libraries Unlimited. 1987.
- G.P.O. *Guideline for the Depository Library System*. Adopted by Depository Library Council.
- Haner, B. E. "Government Information as Recorded in Core Serials of the Geological Science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17. 1990. pp.341-355.
- Harwell, K. "Promoting Patents and Trademarks : A Study of Outreach activities in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ies." *Government Information Quaterly*. Vol.13. No.4. 1996. pp.393-401.
- Hernon, Peter. *Collection Development and Public Access of Government Documents*. Meckler Publishing. 1982.
- Hernon, Peter. and Purcell, Gary R. *Developing Collections of U.S. Government Publications*. Jai Press. 1982.
- Kovacs, Beatri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Library Collections*. Greenwood Press. 1990.
- Love, James. "Pricing Government Information."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l.22. 1995. pp.363-387.

- Margaret, Lane. *Selecting and Organizing State Government Publications*. ALA. 1987. pp.141-165.
- McClure, Charles R. *State Library Services and Issues*.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6.
- McClure, C. & Harman, Keith. "Government Documents a Bibliographic References and Sources in Dissertations." *Government Publication Review*. Vol.9. 1982. pp.61-71.
- McGinty, Stephen. "Political Science Publishers : What Do Citation Reveal?" *Collection Management*. Vol. 11. 3/4. 1989. pp.93-101.
- Ogunbameur, Adunola. "Acquisi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Nigerian Experience." *Government Publication Review*. Vol.20. 1993. pp.515-521.
- Rawen, Atifar & Mitchell Robert. "Building State and Local Publications Collections : the Arizona Experience."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8. 1991. pp.71-82.
- Smith, Diane H. "Manage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Resources in Libraries." *Libraries Unlimited*. 1993.
- Walker, R. D. "Use made of U.S. Government Supported Technical Reports by Researchers in Water Resources."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 21. 1994. pp.335-349.

Government Publication Collection Development for the Academic Libraries.

Kim, Young-Shin *

〈Abstract〉

This is an investigative study on distribution and use of Korean government pub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on the effective collection building of government publications at academic libraries.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government publications was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several government publications sales centers were visited to find out types, titles and publishers of much sought government publications.

As for the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s in economy and politics published for the past three years in Korea were analyzed to find out types, titles and publishers of much referenced government publications.

Furthermore, acquisition librarians working at six university libraries in Taejon and Chungnam area were interviewed to find out various problems in acquiring government publications.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